

영업통 전면 배치...지역특화 100년 은행 스타트

송중욱 광주은행장 2기 출범...대규모 임원 인사 세대교체·내부인사 발탁...“3년내 지역 점유율 40%”

광주은행이 송중욱(사진) 은행장 취임 제2기에 맞춰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세대교체와 더불어 순수한 자행출신으로 신입 임원을 발탁하고 '영업통'을 전면 배치하는 등 영업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이날 4월 1일자로 고병일 종합기획부장, 서상인 영업부장, 이준호 ICT운영부장, 이준우 문화전담지점 지점장, 최영 여신심사 1부 부장 등 5명이 부행장보로 승진, 임원에 발탁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임원은 기존 11명(상임감사위원 제외)에서 12명으로 1명 더 늘었다.

광주은행은 이번 임원 인사에 대해 영업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영업통을 전진배치했으며, 조직 재정비를 위해 영업능력을

인정받은 우수 영업점장과 업무능력이 탁월한 내부 부장을 신입 임원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담당 임원 중 일부를 본부 사업담당 임원으로 재배치해 은행 조직 전반에 영업문화를 확산시켜 영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첫 자행 출신 은행장으로 취임한 송중욱 행장은 지난 3월 1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에 재선임돼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조직 재정비와 내부 발탁을 통해 영업력을 확충하고 튼튼한 은행으로 성장해갈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인사를 들여다보면 광주은행에서 '영업통'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임원으로 발탁되면서 영업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이준우 문화전담지점장은 1983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하남공단 지점장과 영업추진 부 부장, 문화전담지점장 등을 거치며 영업점에서 탁월한 영업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꼽힌다.

서상인 영업부장 역시 1983년 입행한 뒤 기업영업전략부장과 하남공단 1금융센터장, 영업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여기에 이번에 퇴직하게 될 임원 4명 중 2명은 외부출신으로 구성된 반면, 이번에 새로 임원으로 발탁된 5명 모두 광주은행 자행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또 지역현안에 밝은 내부 출신이 대거 포진하게 되면서 지자체 금고 신규 및 재계약 등 지역 내 관수시장 마케팅 강화와 더불어, 지역별 특화 공익상품 등을 판매

해 지역 밀착 '릴레이션십 बैं킹'(Relationship Banking·관계금융) 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영업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를 통해 광주은행이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영업 기반 모태인 광주·전남지역의 점유율을 3년 이내 40%까지 확대해 확고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송중욱 은행장은 “이번 임원 인사는 업무능력과 열정, 대내외 평판을 모두 감안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 광주은행을 고객 중심 은행으로 만들어 갈 적임자를 신입 임원으로 발탁했다”며 “임원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한편 영업력을 인정 받는 직원들을 대거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조선산업 겨우 살아나는데 이번엔 석유화학이 걱정

한은, 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 광주 차 내수부진 설비투자 줄여

지난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던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이 수주액을 늘리며 점차 살아나고 있다. 반면 주력산업의 하나인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수출 호황을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광주 자동차산업도 걱정이다.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로 자동차산업을 추켜들었지만, 업계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을 들어 설비투자를 오히려 줄일 계획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호남권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한 결과, 조선산업은 지난해 수주 호조가 건조로 이어지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수주액은 46억 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4.3% 증가했다. 올해 1월에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3척을 수주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및 천연가스 등의 수요 확대로 LNG운반선 발주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증가세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동부권 석유화학 수출은 그동안 10%대 성장을 멈추고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진-광주소방본부 업무협약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철원)와 광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지난 26일 전력시설물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력시설물별 관할 소방서와 비상 핫라인 구축, 정기적인 전력구 및 변전소 화재 모의훈련 시행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올해 설비투자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동차 제조업체 70%가량은 올해 설비투자를 5~10% 축소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는 설비투자 축소 이유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을 꼽았다.

분기별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12억 3430만 달러, 2분기 12억 9960만 달러, 3분기 12억 4510만 달러, 4분기 11억 440만 달러, 지난 1~2월 10억 729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6.6%, 2분기 16.3%, 3분기 11.5%로 고공행진 했지만 4분기에는 2.4%로 딱 떨어졌다. 올해 1~2월에는 -14.1%를 기록했다. 이는 업체들의 정기 보수에 따른 생산

감소, 마중 무역 분쟁, 글로벌 공급 과잉, 에틸렌 가격 하락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업체들의 에틸렌 설비 신·증설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 마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2월중 지역 반도체 수출도 6억 828만 달러로, 전년 동기(7억 8830만 달러) 대비 22.8% 감소했다.

광주 자동차산업도 걱정이다.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로 자동차산업을 추켜들었지만, 업계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을 들어 설비투자를 오히려 줄일 계획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45.62 (-3.18)
- ↓ 금리(국고채 3년) 1.72 (-0.04)
- ↓ 코스닥 728.45 (-8.36)
- ↑ 환율(USD) 1134.50 (+1.10)

영암 용양지구 행복주택 250호 청약

4월 10~18일...주변 시세의 68~80% 수준 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분부는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영암 용양지구 행복주택 2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양지구 행복주택은 영암군 삼호읍과 목포시 남악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다. 차량으로 삼호읍사무소까지 약 5분, 전남도청까지는 약 20분 소요된다.

신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일원에 건설 중이다. 특히, 산업단지형으로 계획돼 인근 산단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21·26·36㎡으로 전체 공급대상 250세대 중 118세대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외 21㎡형은 대학생·청년에게, 26㎡형은 고령자에게, 36㎡형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에게도 공급된다.

관사·숙소 용도로 소형 평형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대불산단 근로자의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이다.

행복주택은 2년마다 갱신계약하며,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10년, 주거안정이 필요한 고령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LH 홈페이지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PC 및 모바일)으로 진행된다.

다만,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4월 16·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영암 용양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LH 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온라인·TV홈쇼핑 가구 구매 신중하세요”

소비자원, 피해 접수 절반 가구 (15.6%), 장동류 242건(15.1%) 순이었다.

온라인이나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덩달아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3206건의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1596건(49.8%)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 중 전자상거래로 산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7년 51.1%, 올해 5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소파 등 의자류가 384건(24.1%)으로 가장 많았고,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 및 테이블류 249건

피해 사유로는 균열이나 뒤틀림, 흠집 등 품질·A/S 관련 내용이 750건(47%)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 등 계약 관련 내용이 702건(44%)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체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시 A/S 기준과 청약철회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 후에는 배송된 가구의 하자를 배송인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기업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기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벽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